

GS25, PB상품 역지구 형태로 수출

편의점 GS25가 자체브랜드(PB) '유어스' 협업 박스를 역지구 사이트 '대박'을 통해 판매한다. 역지구란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박스에는 스낵, 음료 등 14종의 유어스 상품과 희망나비 팔찌와 배지, 휴대폰스트랩 등을 랜덤으로 담았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기획했다.



이채연 명인에듀 회장, 고려대 사범대에 1억 기부

‘이채연 강의실’ 오픈... “학생들에 도움되길”

2017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1억 기부 강의실 입구에 기부자 이름의 명판 제막 코로나로 학원 경영 어려워도 약속 지켜

“저도 교육사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학교에서 제 이름을 딴 강의실까지 마련해주셔서 너무 뿌듯합니다.”

14일 고려대 사범대에 장학기금 1억 원 기부를 완납하고 본인 명의의 명판(名板) 제막식을 가진 이채연 명인에듀 회장(65)은 행복한 표정이었다.

‘이채연 강의실’은 사범대 운초우선교육관 407호실에 마련됐고 강의실 입구에 ‘이 강의실은 이채연 기부자님의 고귀한 뜻과 정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이날 이 회장을 초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회장은 2017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5년 간 1억 원을 고려대 사범대에 기부하기로 약정했고 올해 그 약속을 완료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정부에서 학원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학생 수를 줄이도록 하면서 학원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회장도 수강생 감소로 한때 매출이 줄어 경영이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학교와 학생들에게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간직했다.

이 회장은 연세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일선 고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200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중고생 대상 대치명인학원을 설립했다. 뛰어난 강사진과 철저한 학생관리로 입시학원가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해 지금은 분당, 동탄, 천안, 부산 등 전국에 30개의 학원(총매출 440억 원)을 거느린 교육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연세대 출신인 이 회장이 고려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아들이기 시작했다. 두 아들을 모두 의사로 키운 이 회장의 큰아들(김포 속편한내과검진센터 원장)이 2003년 고려대 의대에 입학했다. 아들의 학교생활을 보면서 동문간의 끈끈한 정과 화합하는 고려대의 교풍이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2016년 사범대 교육대학원이 운영하는 ‘교육경영AMP’에 입학해 원우 회장을 맡았고 2017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글로벌 리더최고위과정을 다닐 정도로 고려대에 대한 애정이 깊다. 그는 이날 명단 제막식과 함께 교육경영AMP 교수회 회장에도 취임해 경계사를 맞았다.

그는 모교인 연세대 간호대에도 2014년부터 매년 2000만 원씩 기부하고 있고 간호대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맞수인 고려대, 연세대에 기부할 때 고민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두 학교 모두 사랑해야죠”라며 웃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이채연 명인에듀 회장이 14일 고려대 사범대에 장학기금 1억 원을 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강의실 명판 제막식 뒤 강의실 앞에서 웃고 있다. 사진제공 | 고려대 교육대학원

코트라, 19일부터 ‘온라인 한국상품전’ 개최

코트라가 19일부터 2주간 중국지역 온라인 한국상품전을 개최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 기업 233개사와 현지 바이어 간의 1:1 사업상담이 진행된다. 코트라는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디지털 무역플랫폼인 ‘바이코리아’ 온라인 전시관에서 사진 홍보하게 된다. 중국 권역별 진출전략 및 시장 추세를 주제로 한 웹 세미나(웨비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기업별 상담결과에 따라 수출 성과창출을 돕기 위해 후속 관리도 지원한다.

씨젠, 伊에 1200억 규모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이탈리아 정부와 8997만 유로(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급한다. 씨젠의 이탈리아 현지법인인 최근 이탈리아 국방부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책 위원회’에 코로나19 진단제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2014년 이탈리아 현지법인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다. 씨젠은 현지법인이 위치한 리구리아를 포함해 토스카나, 롬바르디아, 베네토주 등 이탈리아 17개 주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PCR 검사를 위한 추출 시약을 공급한다.

광동제약, 구수한 풍미의 ‘광동 흑미차’ 출시

광동제약은 GABA(7바) 성분이 함유된 신개념 음료 ‘광동 흑미차’를 출시했다. 100% 진도산 흑미를 로스팅해 우려낸 곡물차로 편안하고 차분한 목넘김이 특징이다. 출시 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구수하고 깔끔한 풍미와 함께 진하고 맑은 갈색의 색상으로 호평을 받았다. 흑미와 함께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진 GABA(7바) 성분 100mg이 함유되어 있다. 광동제약은 출시에 맞춰 연기자 진기주가 모델을 맡은 TV 광고 캠페인도 공개했다.

뿔난 소비자들 “不可리스”...남양유업 불매폭탄 터지나

(불가)

공식 사과에도 제품 불매선언 잇따라 ‘갑질파동’ 이후 시가총액 64%나 줄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남양유업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

으켰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남양유업 제품 불매를 선언하는 소비자가 잇따르고 있다. 8년 전인 2013년 ‘대리점 갑질’로 촉발된 불매운동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종합하면 소비자들은 이번 남양유업의 행태를 코로나19 사태 속 불안심리를 이용한 상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소비자는 “과장도 정도껏 해야지. 이 시국에 코로나19를 건드리는 것은



논란이 된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갑질 이후부터 남양은 무조건 패스다. 잊을만하면 본색을 드러내니 꾸준히 불매한다”고 성토했다. 이밖에도 “믿고 거르는 남양”, “남양유업 커피믹스 구매 취소” 등도 눈에 띄었다.

8년 간 남양유업을 향한 소비자들의 굼뜨지 않은 시선은

회사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기준 남양유업 보통주와 우선주의 시가총액 합계는 2012년 말(7209억 원)보다 4590억 원(63.67%) 줄어든 26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남양유업 보통주 주가는 94만2000원(2012년 12월 28일 종가)에서 32만6500원(16일 종가)으로 65.3% 하락했다.

실적 역시 곤두박질 쳤다. 매출액은 2012년 1조3650억 원에서 지난해 9489억 원으로 30.5% 줄었고 영업이익은 637억 원에서 -771억 원, 순이익은 610억 원에서 -535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비타민 리턴업

Returnup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NO. 1

10년 연속 판매 1위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리턴업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